

사회



11일 밤 11시에 광주시 동구 선거구에서 당선이 확정된 무소속 박주선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게임사이트서 만난 남자가 귀찮게 한다”

여중생 유서 남기고 투신 자살

여중생이 게임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모 중학교 3년 A(14)양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박물관 건물 3층에서 뛰어 내려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 김모(14)양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양은 이날 투신하기 바로 전 친구인 김양에게 “내 친구가 되어 주어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게임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죽고 싶다”고 적었

다. 김양은 경찰에서 “친구의 메모를 읽지 못했고 자살할 것 같은 생각에 계속 따라 다녔는데 갑자기 3층에서 뛰어 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전담수사팀 12명을 배치해 학교폭력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자들이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분석해 A양이 지목한 남자를 추적하는 한편 이 남성이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543) 김광두



경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 착수

경찰청이 선거 하루 전인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0시27분부터 11시1분까지 34분간 선관위 IP 주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데 이어 밤 11시2분부터 11시20분까지 18분간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 이 공격으로 서버 회선의 대역폭이 고갈되고 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중앙선

관위는 11일 새벽 0시14분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해 서버를 분석하고 공격 당시 접속 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디도스 공격이란 한꺼번에 수많은 컴퓨터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해킹 방법이다. 경찰은 증거를 분석하고 공격자의 IP를 추출해 좀비 PC 등을 파악, 공격 근원지를 역추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5억 받은 원전로비스트 기소

울산지검 특수부는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로비자금 5억원 상당을 회사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 초 원전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광원전 과장 1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여론·출구조사와 엇갈린 광주 동구 피말리는 접전 끝 456표차 희비 교차

4·11 총선

투신자살·무더기 구속... 전국적 관심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전직 동장 투신자살 사건으로 민주당당이 분거지에서 후보공천을 포기해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던 광주시 동구 국회의원 선거는 불과 456표 차이(박주선 1만5372표, 양형일 1만4916표)로 갈렸다. 동구 개표는 초반부터 현역인 박주선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앞서 나갔다. 3선 고지 등에서 나선 박 후보는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양형일 전 의원이,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단장의 추격을 받아 접전지역으로 분류됐다. 오히려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 쪽이 박 후보를 상당히 앞서기도 했다. 선거

당일인 이날 투표소 현장 분위기는 이 후보가 앞선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특히 11일 오후 6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양 후보가 31.9%로, 29.4%의 박 후보, 18.9%의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양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반면 박 후보 측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새나왔다. 그러나 개표 초반인 오후 6시40분께 동명동과 서남동의 투표함이 열리면서 분위기는 일순 급변했다. 박 후보가 618표, 양 후보 518표, 이 후보 418표로 박 후보가 앞서 나갔기 때문이다. 3명의 후보가 나란히 100표 차를 보이며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이 같은 추세가 끝까지

가지였다. 100% 개표가 끝난 밤 11시 박 후보와 양 후보의 격차는 0.9% 포인트였으며, 박 후보는 대형 약재에도 결국 3선에 성공했다. 정치권에서는 투신자살 및 무더기 구속 사태 후 파가온 비난 여론을 의식한 박주선 후보측 지지자들이 속내를 숨긴채 결집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에 대한 조사 방침을 세운 검찰과의 갈등도 예고된다. 이미 박 후보의 보좌관과 특보, 동구청장 등이 그의 선거를 돕기 위해 불법선거조작을 구성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당사자 격인 박 당선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거 전 박 후보를 조사하기로 했다가 박 후보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선거 후 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총선 금품·음식물 제공 여전

광주·전남 선관위, 위반 166건 적발

19대 총선 광주·전남지역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166건이 적발돼 고발·수사의뢰·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11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 예비후보와 선거기간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은 광주에서 고발 13건 등 56건, 전남은 고발 27건을 비롯한 110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광주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인쇄물 배부 위반이 각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자메시지 이용 6건,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4건, 집회·모임 3건 등이었다. 전남은 인쇄물 배부 위반이 25건으

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음식물 제공(14건), 문자메시지 이용(12건), 비방·흑색선전(11건), 집회와 모임 이용(8건) 등이었다.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81명에게는 과태료 2천359만원이 부과됐다. 광주는 4건 7명에게 185만원이, 전남은 6건 74명에게 2174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이와 함께 전남도선관위는 11일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던 선관위로 가장 많았으며 문자메시지 이용 6건,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4건, 집회·모임 3건 등이었다. 전남은 인쇄물 배부 위반이 25건으

자녀와 기표소 입장 못하자 용지 찢어 ○초등학생 아들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다 자신의 투표가 무효처리되는 일이 발생. ○11일 해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해남군 현산면에 사는 주민 김모(45)씨가 이날 오전 10시에 투표에 나섰다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데리고 기표소에 들어가자 투표종사원들에 제지당하자 화가 난 나머지 투표 용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린 것. ○김씨의 투표용지는 이후 투표 관리관이 봉인한 뒤 투표함에 넣어졌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 공개된 투표지 처리 규정에 따라 개표 땀 무효표 처리.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featuring travel packages, dining options, and entertainment services. Includes text like '롯데제이티비', '하춘화 디너쇼', and various travel deals.

대표전화 1577-6511 | 광주점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무점점 | 전남점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